

경제

금호타이어, 中서 타이어 30만개 리콜

텐진공장 생산 제품 잔량고무 사용량 초과 신뢰회복 위해 자발적 결정...韓기업 초비상

중국 자동차타이어시장 점유율 1위인 금호타이어가 최근 중국에서 품질 논란이 불거졌던 타이어 30만개를 오는 15일부터 리콜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타이어에 대한 리콜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량감독총국은 금호타이어가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텐진(天津) 공장에서 생산한 30만2673개의 타이어를 오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질량감독총국은 발표문에서 “금호타이어가 리콜에 대한 보고를 통해 생

산과정에서 엄격한 내부표준을 지키지 않아 타이어의 품질과 성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인했으며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무료로 문제의 제품들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또 2008년 3월 이후 생산 승용차 타이어에 대해 무료 안전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리콜 파문은 중국 CCTV가 지난달 15일 소비자의 날을 기념해 제작한 고발 프로그램에서 금호타이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CCTV는 “금호타이어 텐진공장의 타이어 제조시 잔량고무(rework

rubber) 사용과 관련해 생산기준이 실제 생산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품에는 결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활용 고무의 사용량을 20% 이내로 한다는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의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문제가 발생한 텐진공장은 지난달 15일 이후 소비자보호인증인 ‘3C인증’이 보류돼 가동을 중단,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금호타이어 리콜 사태의 불뚱이 튀지 않을까 초긴장하고 있다.

중국에는 한국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고 흡소공과 전자·의류·식료품·자동차 등 소비

관련 여러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올라 있어 언제든지 금호타이어와 같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중국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았지만 리콜로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면서 “중국이 최근 까르푸와 월마트, 휴렛패커드 등 외자기업들의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기업도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리콜로 입은 손실은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며 향후 사업에도 상당 기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들이 금호타이어의 불뚱이 자기들에게 튕겨 오를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봄 여인 변신 완성~ 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 패션스트리트 르스매장에서는 봄학기 물신 풍기는 플라워프린트의 원피스와 핑크와 옐로우의 플랫슈즈 등 화사한 봄 신상품을 선보여 여성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작년 광주·전남 유가증권 흑자...코스닥 적자

2010년 광주·전남 지역 상장사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은 매출액이 높고 순이익 흑자로 전환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13개사에 대한 2010년도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매출액은 7조1813억원으로 전년(6조1523억원)보다 16.7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254억원으로 전년(-

613억원)의 적자에서 흑자로, 순이익도 2428억원으로 전년(-2조9667억원)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부채비율은 전년 말과 비교해 3263.3%P 낮아진 330.5%P를, 전국 평균(98.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대상 기업 13사 가운데 12사가 순이익 흑자를 보였고 1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또 코스닥시장 7개사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총 매출액은 3124억원으

로 전년(3185억원)보다 1.9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32억원으로 전년(196억원)보다 32.28% 감소했고 순이익은 231억원 적자를 보이며 전년(-77억원)에 이어 적자를 지속했다.

코스닥시장 부채비율은 전년말과 비교해 11.33%P 낮아진 41.07%를 기록, 전국 평균(74.55%)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3개사가 순이익 흑자, 4개사가 적자를 보였다. <연합뉴스

기아車 1분기 62만대 판매 美서 월간 판매 사상 최대

기아자동차는 3일 올해 1분기에 내수 12만5631대, 수출 49만3500대 등 총 61만9131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내수는 K시리즈 등 신차 판매 호조로 작년 동기 대비 19.4% 늘었고, 수출도 누적 대수 1000만대를 돌파하며 33.4% 증가해 전체적으로 30.3% 신장했다.

3월 한달간 22만4637대(내수 4만6100대, 수출 17만8537대)를 판매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9.8%, 실연률로 영업일수가 부족했던 2월보다는 26.7% 각각 늘었다. 내수는 모닝, K5, 스포티지R 등이 인기를 유지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로도 18.1% 늘었다.

3월 수출은 국내생산분이 10만1026대로 29.8%, 해외생산분은 7만7511대로 35.3% 각각 증가했다.

기아차는 또 미국시장에서 월별 판매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기아차미국법인인 작년보다 44.7% 늘어난 4만4179대를 판매해 미국 시장 진출 이래 최대 월간판매실적을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김종호 사장 “리콜 사태 안타깝지만 극복할 것”

김종호 금호타이어 사장은 지난 1일 “중국 리콜 사태로 어느 정도 데미지는 불가피하겠지만 시장 점유율 1위의 자력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금호타이어는 해외시장에서 진가를 더 발휘하고 있다”면서 “한창

커지고 있는 과정에 리콜 사태를 맞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노조의 일관협 재교섭 요구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지금 풀링을 만난 배와 같다. 일단 살아야하기 때문에 아깝지만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워크아웃을 졸업하면 모든 것(임금·복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특히 이날 조업 정상화 합의와 관련, “노조가 슬기롭게 합의를 했다”며 “노사 모두 심기일전해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매출 2조7020억원, 영업이익 2449억원, 당기 순이익은 89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영업이익에서 7.8%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대기업이 화인코리아 회생 방해” 사실로... 사조그룹 계열사, 법원에 파산 요구

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주)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를 국내 대기업이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광주일보 4월1일자 8면)이 사실로 확인됐다.

3일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29일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바이오피드와 사조대림, 특수관계사인 에드윈플러스 등 3개 채권 회사가 재판부에 채무자인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 파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채권사는 의견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회수에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채권의 감액을 가져올

것”이라며 “회생절차 신청 사건을 기각하고 신속하게 파산절차상 환가를 통해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인코리아는 “사조바이오피드는 화인코리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지난 2월21일 화인코리아의 담보채권인 동양증권소유 채권을 인수해 놓고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기고 파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확실한 수익을 내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을 대기업이 강탈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나주시 등 지역 지자체들도 화인코리아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지난 1일 광주

지방법원에 화인코리아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향토기업이 다시 한번 회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임 시장은 건의서에서 “파산한다면 근로자 실직, 사육능가 및 협력업체 출도산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향토기업이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박준영 전남지사와 지방의원 등도 조만간 재판부에 건의서를 낼 것으로 알려지는 등 화인코리아 회생에 한목소리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물가상승 3개월 연속 4%대

유가상승, 신선채소 등이 올라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SI)는 120.1로 전달보다 0.5%상승했고 전년 동월대비 4.4% 상승해 1월의 4% 상승 후 3개월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감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지수도 122.5(전도시 평균 123.0)로 전월 대비 0.5% 올랐고, 전년 동월대비 4.4% 상승했다.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교육비와 담고기 등이 오르면서 전달보다 0.3%, 전년동월대비 5.1% 상승한 121.1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23.6으로 전년동월 대비 5.6%올랐고, 전년동기대비 5.3% 상승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음식료·항공업종 단기적 접근

KOSPI가 2,100선을 재탈환하며 강세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단의 불확실성을 경험한 이후 일련의 대외변수들에 대한 내성을 확보한 외국인들은 17일 이후 12일 동안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 가며 3.6조원을 넘는 국내 주식을 매수한 상황이다.

일본 대지진 사태의 후유증과 리비아를 중심으로 한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의 정정불안, 유럽의 재정리스크 등 약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증시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월 KOSPI는 견조한 상승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경제 측면에서는 최근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경계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암묵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하던 1,100원 선을 하회하면서 2008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에 따른 원화수요 증가와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 호조를 반영했을 때 향후 원화절상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정부의 원화강세 용인과 추가 금리인상 가

능성 또한 환율 하락 기조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가 선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 경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최근의 상승추세가 훼손될 정도의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은 적지만,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을 감안할 때 업종 및 종목별로 가격메리트가 높은 종목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이번 주에도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는 7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1분기 실적시즌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여 실적호전 이 지속되는 화학, 정유, 자동차업종과 실적개선 기대 업종인 IT와 철강업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원화강세 수혜업종인 음식료와 항공업종 등의 경우도 단기적 접근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설탕·밀가루값 폭등...가공식품·외식값도 ‘들쭉’

설탕에 이어 밀가루 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를 주원료로 쓰는 과자와 빵, 음료, 라면 등 먹을거리의 값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당업체들은 지난달 중순께 3개월여만에 공급가격을 9% 안팎 올렸고 1일 동아원을 시작으로 제분업체도 3년 만에 밀가루값을 8~9%를 인상할 예정이다.

제당·제분업체들은 원당, 원맥 등 제품 원료의 국제 거래가격이 최근 몇 달 새 급등해 더는 이를 떠안을 수 없을 정도라는 입장이다.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식품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빵이나 과자 등 가공식품뿐 아니라 자장면, 칼국수같은 서민음식까지 줄줄이 가격이 올라갈 전망이다.

식품 원재료 값이 잇따라 오르면서 외식 값도 들쭉이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알뜰미용, 종이 등 포장재 값도 들쭉여 가격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435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8 16 26 30 38 45	4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287,550,013	1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9,223,119	31
3	5개 숫자 일치	1,504,851	1,426
4	4개 숫자 일치	50,000	67,838
5	3개 숫자 일치	5,000	1,122,280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